

주간 2017. 07. 10. ~ 2017. 07. 16.

전남농업정보

144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배추 · 무 · 양배추 생산, 출하 및 가격전망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순천시, 미국 동부시장에 농 · 특산물 20톤 첫 수출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장 컨설팅 실시
- 스마트팜 보급모델 개발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정책동향

-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실시

사업신청 및 홍보

-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성황리 개최
- 여름휴가, 농촌교육농장으로 다녀오세요



전남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0일은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고,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2~24도, 최고기온: 28~32도)보다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4~10mm)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주의보 : 벼 딱노린재, 바이러스병, 고추 담배나방, 파밤나방 등
- ▶ 예 보 : 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 등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9

- ▶ 배추·무·양배추 생산, 출하 및 가격전망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2

- ▶ 순천시, 미국 동부시장에 농·특산물 20톤 첫 수출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5

- ▶ 폐포계 애호박 탄산가스 시비에 적합한 환기방법
- ▶ 사과 자연재배 과원의 연차간 토양 이화학성 및 수량 변화
- ▶ 고온기 재배용 대과종 토마토 품종특성
- ▶ 블루베리 매미나방 방제시기 및 친환경 자재 선발
- ▶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장 컨설팅 실시
- ▶ 스마트팜 보급모델 개발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 ▶ 똑똑한 물 관리로 노지재배 일손과 물 절약
- ▶ 콩, 올바른 순지르기로 다수확의 결실을
- ▶ 우리 품종 과일 4총사로 무더위 날리세요
- ▶ 콩과작물 병해충, 예찰과 빠른 방제로 잡는다
- ▶ 녹·홍차 쌀파스타 제조기술 도내 쌀가공업체 기술이전 상품화 추진
- ▶ 보리알곡사료 이용 효과 입증

7. 정책 동향 33

- ▶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 ▶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실시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6

- ▶ 나주시, GAP 인증 확대 추진, 지역 농산물 신뢰 제고 기대
- ▶ 광양시, 복숭아명나방 피해예방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실시
-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새 보금자리 마련
- ▶ 장성군 새싹삼, 웰빙시대 소득작물 급부상
- ▶ 진도군, 농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9. 해외 농업정보 40

- ▶ 쿠바, 커피 산업 동향
- ▶ 네덜란드, 인삼 시장 동향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7. 1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0.2% 하락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주간 하락률을 보임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1.2% 상승함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1.3% 상승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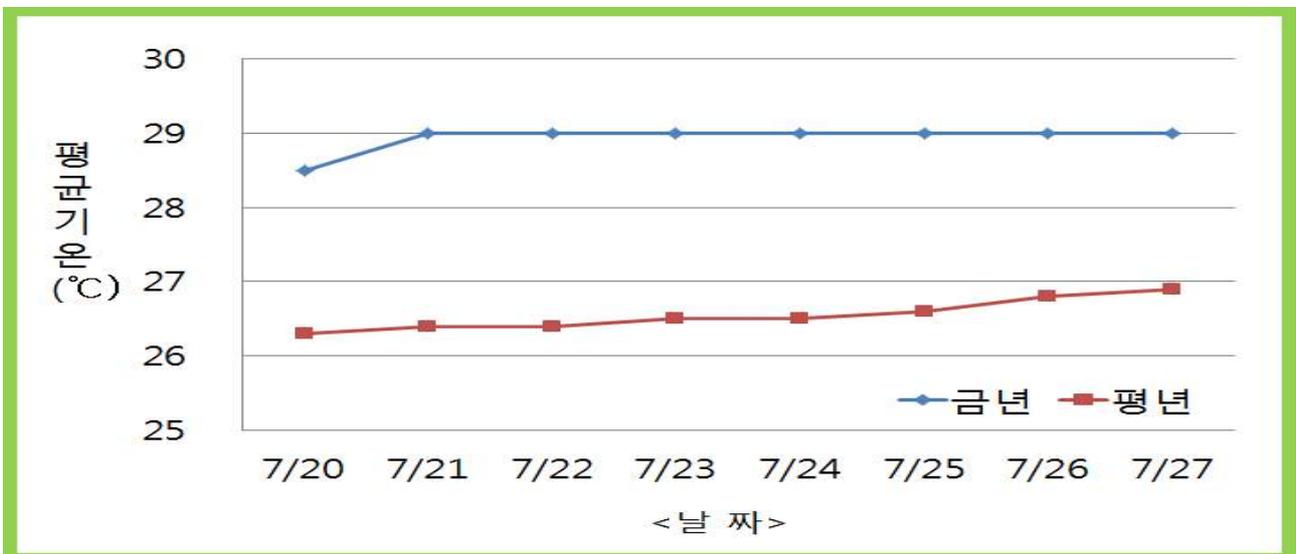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5

- ▶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성황리 개최
- ▶ 인삼에 대한 정책의견 『국민생각함』 으로 보내주세요
- ▶ 여름휴가, 농촌교육농장으로 다녀오세요
- ▶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大暑)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7월 20일 ~ 7월 27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8.9℃ (평년대비 2.4℃ 높음)
- 최고기온 : 32.9℃ (평년대비 2.2℃ 높음)
- 최저기온 : 25.0℃ (평년대비 1.6℃ 높음)
- 강수량 : 7.8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8.9	26.6	2.4	32.9	30.7	2.2	25.0	23.4	1.6	7.8
7. 20.(목)	28.5	26.3	2.2	32.0	30.5	1.5	25.0	23.1	1.9	5.5
7. 21.(금)	29.0	26.4	2.6	33.0	30.5	2.5	25.0	23.2	1.8	6.7
7. 22.(토)	29.0	26.4	2.6	33.0	30.5	2.5	25.0	23.3	1.7	6.6
7. 23.(일)	29.0	26.5	2.5	33.0	30.6	2.4	25.0	23.4	1.6	9.4
7. 24.(월)	29.0	26.5	2.5	33.0	30.7	2.3	25.0	23.5	1.5	9.9
7. 25.(화)	29.0	26.6	2.4	33.0	30.8	2.2	25.0	23.5	1.5	8.8
7. 26.(수)	29.0	26.8	2.2	33.0	31.0	2.0	25.0	23.7	1.3	7.9
7. 27.(목)	29.0	26.9	2.1	33.0	31.2	1.8	25.0	23.7	1.3	7.6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7월 20일~7월 27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7.9℃ (평년대비 2.5℃ 높음)
- 최고기온 : 30.9℃ (평년대비 1.4℃ 높음)
- 최저기온 : 25.0℃ (평년대비 1.8℃ 높음)
- 강수량 : 5.4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7.9	25.9	2.5	30.9	29.4	1.4	25.0	23.2	1.8	5.4
7. 20.(목)	27.5	25.6	5.0	30.0	29.2	0.8	25.0	22.9	2.1	3.7
7. 21.(금)	27.5	25.7	1.8	30.0	29.2	0.8	25.0	23.0	2.0	4.8
7. 22.(토)	27.5	25.7	1.8	30.0	29.3	0.7	25.0	23.1	1.9	4.5
7. 23.(일)	27.5	25.8	1.7	30.0	29.2	0.8	25.0	23.2	1.8	6.2
7. 24.(월)	28.0	25.8	2.2	31.0	29.4	1.6	25.0	23.2	1.8	6.2
7. 25.(화)	27.5	25.9	1.6	30.0	29.5	0.5	25.0	23.3	1.7	6.3
7. 26.(수)	29.0	26.1	2.9	33.0	29.8	3.2	25.0	23.4	1.6	5.2
7. 27.(목)	29.0	26.3	2.7	33.0	29.9	3.1	25.0	23.5	1.5	6.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7월 20일~7월 27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7.0℃ (평년대비 1.7℃ 높음)
- 최고기온 : 29.1℃ (평년대비 0.9℃ 높음)
- 최저기온 : 24.9℃ (평년대비 1.8℃ 높음)
- 강수량 : 7.5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7.0	25.3	1.7	29.1	28.3	0.9	24.9	23.1	1.8	7.5
7. 20.(목)	26.5	25.0	1.5	29.0	28.0	1.0	24.0	22.7	1.3	6.6
7. 21.(금)	27.0	25.1	1.9	29.0	28.1	0.9	25.0	22.9	2.1	8.5
7. 22.(토)	27.0	25.2	1.8	29.0	28.2	0.8	25.0	23.0	2.0	8.2
7. 23.(일)	27.0	25.2	1.8	29.0	28.2	0.8	25.0	23.0	2.0	8.8
7. 24.(월)	27.5	25.3	2.2	30.0	28.2	1.8	25.0	23.1	1.9	8.1
7. 25.(화)	27.0	25.4	1.6	29.0	28.3	0.7	25.0	23.2	1.8	7.2
7. 26.(수)	27.0	25.5	1.5	29.0	28.5	0.5	25.0	23.4	1.6	5.5
7. 27.(목)	27.0	25.7	1.3	29.0	28.7	0.3	25.0	23.5	1.5	6.8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7. 07. 16. ~ 07. 31.)

농촌진흥청은 벼 먹노린재, 채소류의 바이러스병, 고추 담배나방, 과수의 심식나방류, 응애류, 돌발해충 등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하오니 장마기간 중에도 농작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보 : 벼 먹노린재

- 최근 고온으로 전남·충남·충북 일부지역 논에 발생하고 있어 초기 공동방제 실시

□ 주의보 : 바이러스병(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등)

- 총채벌레, 진딧물류, 가루이류 등 매개충 증가로 바이러스병이 늘어나고 있어 예방적으로 매개충 등 방제 철저

□ 주의보 : 고추 담배나방, 파밤나방 등

- 담배나방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높아지면 발생증가 우려, 발생초기 적용약제로 방제

□ 주의보 : 과수 돌발해충, 심식나방류, 응애류, 노린재류

- 장마기간 후 발생증가 우려, 예찰·방제 철저

□ 주의보 : 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 발생 과원의 잔재물 등 외부로 유출금지, 의심 증상 발견 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

□ 예보 : 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 등

- 서남해안 지역으로 계속 비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해당지역에서는 정밀예찰과 신속한 방제 실시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배추 생산, 출하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고랭지배추 생산량 작년대비 증가

- 2017년 고랭지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12~16% 많은 15만~15만 5천톤으로 전망
-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6~7% 증가한 4,366~4,676ha로 조사
- 고랭지배추 예상 단수는 작년보다 6~8% 증가한 10a당 3,238~3,318kg

□ 출하전망 : 7~8월 고랭지배추 출하량 작년보다 증가

- 7월 고랭지배추 출하량은 작년보다 2% 증가할 전망
- 7월 출하면적은 준고랭지 1기작 배추 정식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전망
- 7월 출하단수는 가뭄 및 고온으로 작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조사, 관수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어 가뭄으로 인한 단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 가격전망 : 7월 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7월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와 소비부진으로 작년보다 낮은 10kg당 5,500원 내외로 전망
- 2017년 대량수요처의 저장량이 작년보다 많아 7~8월 시장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 7월 상순 장마에 따른 잦은 강우로 작업 여건이 악화되거나, 작황이 나빠질 경우 7월 가격은 변동할 수 있음

무 생산, 출하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봄·고랭지무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 2017년 노지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3~7% 많은 8만 6천~9만톤으로 전망
- 노지봄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9% 증가한 973ha, 단수는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작년보다 2~6% 감소한 10a당 8,866~9,263kg
- 2017년 고랭지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17~20% 많은 5만 4천톤 내외로 전망
- 고랭지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조사

□ 출하전망 : 7월 출하량 작년보다 감소, 8월은 증가

- 7월 출하량은 작년보다 2% 적을 것으로 전망
- 7월 노지봄무 출하량은 작년보다 3% 감소하나, 준고랭지 1기작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 8월 출하량은 고랭지무 출하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작년보다 11% 많을 전망

□ 가격전망 : 7월 가격 전월대비 하락 전망

- 7월 가격은 노지봄무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전월보다 높은 18kg당 11,000원 내외로 전망
- 7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우천에 따른 작업여건 악화로 일별 가격 상승폭은 커질 수 있음
- 8월 가격은 고랭지무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양배추 생산, 출하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고랭지양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전망

- 2017년 고랭지양배추 생산량은 작년대비 13% 증가한 7만 1천톤으로 전망
-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작년보다 6% 증가
- 고랭지양배추 예상 단수는 작황이 나빴던 작년보다 6% 증가한 10a당 3,724kg으로 추정

□ 출하전망

- 7월 출하량은 노지봄과 준고랭지양배추가 많아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

□ 가격전망 : 7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 7월 가격은 작년보다 낮은 8kg당 3,500원 내외로 전망, 8월 가격도 고랭지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장마 이후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순천시, 미국 동부시장에 농·특산물 20톤 첫 수출

- 한인식품 유통업체, 뉴욕 한남체인에서 판촉 계획 -

- 순천시는 오는 9월 초 미국 동부시장 뉴욕 한남체인에서 판촉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7월 14일 우수 농·특산물 20여톤을 선적했다.
- 시는 2014년부터 미주 시장을 개척하여 지속적으로 수출선을 넓혀 왔으며, 올해는 새롭게 미국 동부시장에 문을 두드린다.
- 이번에 선적하는 품목은 남도식품, 매일식품, 미가식품, 쌍지뜰, 씨스타, 경덕농수산의 김치류, 반찬류, 장류, 젓갈류, 쌀과자, 함초가공품, 해조류, 건어물 등 총 40여개 품목으로 3만 7,000달러 (약 4,200만원) 상당이다.
- 선적된 농·특산물은 8월 중순에 미국에 도착해 통관 절차, 내륙 운송을 거쳐 9월 1일부터 5일까지 뉴욕의 한남체인에서 판촉 행사를 통해 현지 소비자를 만나게 된다.
- 순천시는 해외시장에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에 중국 Ningbo시·홍콩·미국 애틀랜타 등에서 다국적으로 판촉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 또한, 수출물류비와 촉진비 지원, 해외바이어 상담회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 지원정책을 펼쳐 내수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갈 방침이다.
-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은 농업정책과 가공수출담당 (749-868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순천시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7. 17.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17)	1주일전 (07/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작물	쌀(일반계)	20kg	32,020	32,000	31,800	36,200	41,467	↓ 11.5	↓ 22.8
	콩(백태)	35kg	170,800	170,800	170,600	151,500	163,300	↑ 12.7	↑ 4.6
	고구마(밤)	10kg	32,600	33,500	27,550	27,200	31,720	↑ 19.9	↑ 2.8
	감자(수미)	20kg	32,200	32,100	30,050	18,900	22,340	↑ 70.4	↑ 44.1
채소류	배추(봄)	1kg	890	624	453	835	655	↑ 6.6	↑ 35.9
	양배추	10kg	3,800	4,100	3,375	6,575	5,749	↓ 42.2	↓ 33.9
	오이(다다기계통)	10kg	42,000	29,333	14,750	22,250	24,074	↑ 88.8	↑ 74.5
	애호박	8kg	22,400	18,400	13,800	18,000	14,987	↑ 24.4	↑ 49.5
	건고추(화건)	60kg	650,000	616,000	578,000	687,500	779,000	↓ 5.5	↓ 16.6
	풋고추	10kg	45,400	40,800	34,450	51,750	39,227	↓ 12.3	↑ 15.7
	마늘(깐마늘)	20kg	128,000	129,000	128,550	144,000	112,533	↓ 11.1	↑ 13.7
	양파	20kg	23,600	23,300	21,450	13,900	15,620	↑ 69.8	↑ 51.1
	당근	20kg	29,000	29,100	31,600	30,200	31,760	↓ 4.0	↓ 8.7
	대파	1kg	1,430	1,320	1,393	1,598	1,613	↓ 10.5	↓ 11.3
	파프리카	5kg	14,600	14,000	13,900	14,550	15,370	↑ 0.3	↓ 5.0
	참외	10kg	21,200	19,900	29,850	26,100	25,620	↓ 18.8	↓ 17.3
	토마토	10kg	15,800	15,300	17,800	16,000	17,493	↓ 1.3	↓ 9.7
	방울토마토	5kg	13,600	13,000	17,100	15,800	11,520	↓ 13.9	↑ 18.1
	수박	1개	15,800	14,800	14,700	16,350	15,463	↓ 3.4	↑ 2.2
	과일류	사과(후지)	10kg	41,600	41,700	37,900	38,050	51,067	↑ 9.3
배(신고)		15kg	56,800	57,700	47,650	50,050	55,297	↑ 13.5	↑ 2.7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17)	1주일전 (07/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1,000	521,000	521,000	536,000	551,667	↓ 2.8	↓ 5.6
	느타리버섯	2kg	12,400	11,800	11,900	14,850	14,770	↓ 16.5	↓ 16.0
	새송이버섯	2kg	7,400	7,800	7,800	7,450	7,523	↓ 0.7	↓ 1.6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976	7,924	7,828	7,890	6,708	↑ 1.1	↑ 18.9
	돼지고기(삼겹살)	100g	2,372	2,206	2,259	2,132	2,120	↑ 11.3	↑ 11.9
	닭고기	1kg	5,298	5,481	5,641	5,783	5,791	↓ 8.4	↓ 8.5
	계란(특란)	30개	7,882	7,969	7,956	5,092	5,461	↑ 54.8	↑ 44.3
	우유	1리터	2,529	2,527	2,524	2,549	2,475	↓ 0.8	↑ 2.2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7. 17.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305 천원	5,203 천원	5,996 천원	↑ 2.0	↓ 11.5
	거세	6,233 "	6,638 "	7,246 "	↓ 6.1	↓ 14.0
송아지 (6~7월)	암	3,054 "	3,143 "	3,237 "	↓ 2.8	↓ 5.7
	수	3,915 "	3,954 "	3,979 "	↓ 1.0	↓ 1.6
육우(600Kg)		2,530 "	2,714 "	3,277 "	↓ 6.8	↓ 22.8
젓소수송아지(7일령)		154 "	161 "	397 "	↓ 4.3	↓ 61.2
돼지(110kg)		466 "	470 "	391 "	↓ 0.9	↑ 19.2
육계(원/kg)		1,871 원	1,281 원	1,545 원	↑ 46.1	↑ 21.1
계란(원/특란10개)		1,835 "	1,979 "	1,051 "	↓ 7.3	↑ 74.6
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0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폐포계 애호박 탄산가스 시비에 적합한 환기방법

□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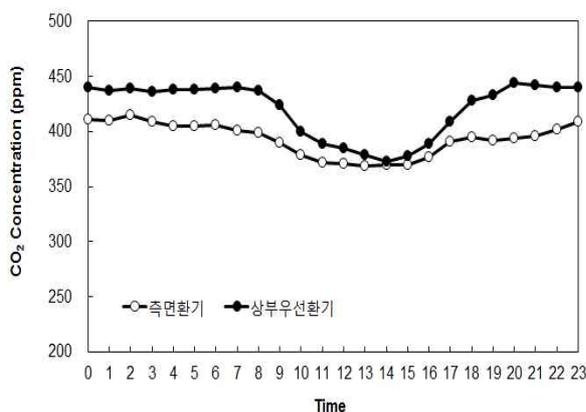
- 애호박 시설재배 시 탄산가스 시비효율 증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영농기술·정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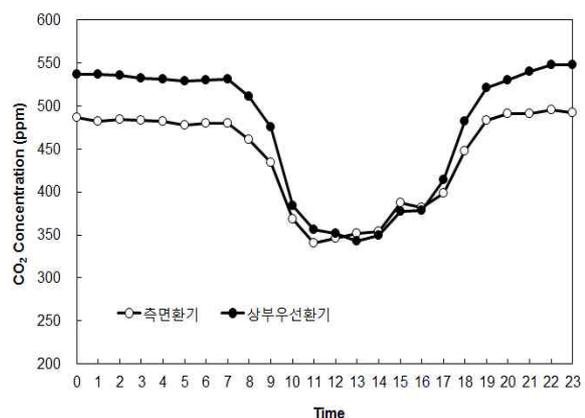
- 탄산가스 공급수단 : 드라이아이스
- 드라이아이스 공급량 : 180kg/10a
- 환기방법 : 배기팬을 이용한 상부 우선 환기
- 드라이아이스 배치방법 : 온실길이를 감안해 균일한 간격으로 배치
- 환기 설정방법 : 배기팬 온도를 주간 25℃로 설정하고 측면개폐기를 28℃로 설정

□ 기대 및 파급효과

- 상부의 배기팬을 이용한 우선 환기 시 시설 내 탄산가스 농도 10% 향상
- 폐포계 애호박의 경우 건물생산성 9% 향상, 생산성 7% 향상



【1월】



【2월】

환기방법에 따른 월별 시설 내 탄산가스 농도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효중, 손동모, 김성준

■ 사과 자연재배 과원의 연차간 토양 이화학성 및 수량 변화

□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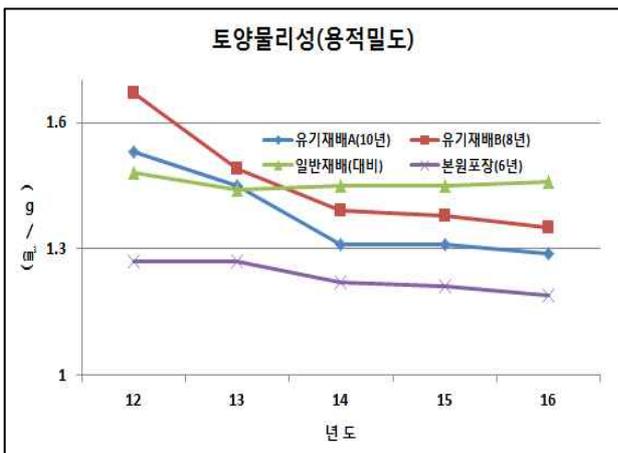
- 농가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과 자연재배에 대한 과학적 조사 자료 공유 및 자연재배 농법 희망농가 참고자료로 활용
- 자연재배 선도농가의 연차별 토양이화학성 변화, 재배상 특이사항, 과실 수량변화 등을 참고하여 영농에 반영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자연재배 포장 용적밀도 변화 : '12년 1.5→'14년 1.3→'16년 1.3g/cm³
- 착과수 증가 : '12년 36→'14년 53→'16년 91개/주
- 점무늬낙엽병 감소 : '13년 75→'14년 55→'15년 13→'16년 8.6%

□ 기대 및 파급효과

- 사과 자연재배 시 토양 변화와 품질의 연관성 구명 및 재배상 문제점 개선



유기재배 과원의 토양 유기물 비교 및 착과상황(2016)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김병삼, 조경철, 윤봉기

■ 고온기 재배용 대과종 토마토 품종특성

□ 배경 및 필요성

- 토마토의 수출은 농가별 재배기술 차이가 크고 수출 대상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과 규격품 생산 기술이 부족한 실정임
- 고품질 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하여 안전 재배지대 설정, 수출용 재배에 적합한 품종 선별하여 영농 정보자료가 필요함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여름재배에서 화방 형성율은 동양계 품종 93~100%, 유럽계 품종 78~80% 수준이었으나 고온기에 육묘한 억제작형은 반대임
- 1화방부터 5화방까지 화방은 동양계 93~100%, 유럽계 78~80% 수준이었음
- 여름재배의 상품 수량은 동양계 품종의 라피도 품종이 3,107, 슈퍼도태랑 2,555kg/10a이었고, 유럽계 TY트러스트 품종은 4,438kg/10a이었음
- 토마토의 여름재배에서 수확한 과의 M사이즈 구성비율은 동양계 품종의 슈퍼도태랑 > 라피도 > 마스카라 품종, 유럽계 품종은 TY트러스트 > 데프니스 > 다릴라 품종이 좋은 경향임
-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한 규격과 분포를 S, M(114~165g/개)사이즈로 확대할 경우에 과 분포 비율은 동양계 품종의 라피도 61, 슈퍼도태랑 51, 마스카라 48% 순이었고 유럽계 품종은 TY트러스트 76, 데프니스 57, 다릴라 56% 순이었음
- 바이러스 증세 발현은 동양계 품종이 매우 민감하게 발생되고, 유럽계 품종은 동양계 품종에 비해 비교적 강한 경향임

□ 기대 및 파급효과

- 완숙토마토의 소비 용도와 고온기에 적합한 재배 품종 선택
- 토마토 수출을 위한 품종 선택과 규격품 분포 정보 활용 가능
- FTA를 이용한 수출용 완숙토마토 재배단지 조성 및 수출 확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정종모, 김희곤

■ 블루베리 매미나방 방제시기 및 친환경 자재 선발

□ 배경 및 필요성

- 블루베리는 기능성이 높고 껍질째 먹으므로 재배 안전성 요구도가 높은 과종임
- 블루베리는 무농약 이상의 재배농가 비중이 높아 친환경 자재 선발이 필요함
- 완도 지역 블루베리에서 생육 초기 매미나방의 발생과 피해가 컸음(2015년)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전남 남부 해안지역의 효과적인 매미나방 유충 방제시기는 발생 초기인 꽃눈 발아기 3월 중·하순
- 선발 친환경 자재는 멸충대장, 지비원, 충격파, 방충이며 살포는 1,000배액을 약액이 흘러내릴 정도로 충분히 살포하고, 햇볕이 강한 한낮에는 약해를 볼 수 있으니 피해서 서늘할 때 살포함

□ 기대 및 파급효과

- 무농약 이상 농가의 친환경 해충 피해 예방→농가소득 보전 및 향상



【매미나방 피해 잎】



【친환경 자재 살포 시험 장면】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정현주, 조혜성

■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장 컨설팅 실시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군 특화작목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반을 편성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컨설팅 할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사업 등 3사업 18개소이며, 사업비는 56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다.
- 현장 기술지원반은 작목별 전문가인 연구·지도직 공무원으로 구성했으며,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발굴하여 현지에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사업장별로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시책건의 및 인근농가로 확산할 계획이다.
- 2017년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된 사업은 담양군 딸기 신품종(죽향) 육묘기반 조성, 보성군 친환경 보성감자 시설재배단지 육성, 해남군 친환경 유기축산단지 조성, 장성군 옐로우프루트 특화단지 조성 등 15시군에 18개소를 추진한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스마트팜 보급모델 개발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 스마트팜 확산 보급을 위한 소규모 단동형 농가에 적합한 보급모델 개발 박차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소규모 단동형 하우스 재배 농가가 사용하기 쉽고 농가시설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관련 산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7월 14일 (유)린컨패스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스마트팜은 온실, 시설하우스 및 축사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하여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하며 농식품부에서 2014년부터 확산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 전남의 ICT 융복합 스마트팜 설치농가는 204농가 127ha로 전국의 9% 수준으로 미약하여 스마트팜 운용기술 확산과 현장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 전남 시설원에 농가에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0.5ha 미만의 농가가 84%로 소규모 저가 단동형 스마트팜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사용목적에 따라 규모와 확장성이 다양하게 요구되어 왔으나 제한된 규격 및 확장성, A/S 편이성 등이 확산·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팜 보급모델 공동 연구·개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산업화 모델 공동개발 △스마트팜 센서 다양화에 따른 활용센서 개발 실증 및 보완 △현장 활용 문제점 개선 및 시스템 보완 등 농가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산업화 모델 개발 보급 및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4차산업화 공동 관심사항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똑똑한 물 관리로 노지재배 일손과 물 절약

- 스마트 관개시스템 개발... 노지 블루베리 화분재배에 적용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물 부족 시대에 노지 밭작물에 제 때에 알맞은 양의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 기술은 환경제어가 어려운 노지 블루베리 화분재배를 대상으로 개발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감지기를 이용해 측정, 진단, 제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 특히, 토양감지기로 농장 여건에 맞춰 물주는 구역과 토양종류에 따라 물의 양과 물주는 방식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강우 예보 시 토양이 과습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펌프 등 관수시설 작동을 강수확률에 따라 일정시간 늦추는 기능도 있다.
- 이와 함께 개발된 시스템은 펌프 오작동 등 이상상황을 감지해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고, 물탱크의 양을 수시로 수위감지기로 점검하면서 자동으로 물을 채워준다.
- 이밖에도 기상청 날씨정보를 이용해 일별 작물 증발산량을 산정해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작물 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돕는다.
- 이와 관련한 관개시스템을 농가현장에 적용한 결과, 10a 면적당 관행대비 농업용수 31% 절약, 관개소요 노동시간 95% 절감, 블루베리 수확량 34% 증수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이 시스템을 재배면적 1ha 농가에 적용하면 연간 2천 5백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 이어 연간 약 610톤의 농업용수를 절약할 수 있고, 관개소요 노동력 비용은 3백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지 스마트 관개시스템 개발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관련업체에 기술 이전했다. 신속한 확산 및 보급을 위해 2018년부터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민영 농업연구사는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가뭄 등에 따른 물 부족 시기에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라며, “노지 스마트 관개시스템은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다른 발작물 및 도시농업 분야에도 확대 적용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콩, 올바른 순지르기로 다수확의 결실을

- 콩 순지르기의 효과와 올바른 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장마기에 콩 식물체를 건전하게 키우기 위한 올바른 순지르기(적심) 방법을 제시했다.
- 순지르기는 식물체가 웃자라서 쓰러짐이 예상될 때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며, 적절한 순지르기는 수확량을 약 10% 이상 높일 수 있다.
- 콩 순지르기의 올바른 방법은 5~7번째 복엽 발생 시기에 식물체의 생장점인 끝 순을 잘라 곁가지를 유도해 식물체를 건실하게 키워내는 것이다.
- 무성하게 자라는 서리태와 같은 콩은 쓰러짐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순지르기 효과가 크며, 1차 순지르기 후에도 쓰러짐이 예상되면 꽃이 피기 전 2차 순지르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순지르기 작업은 낮으로 식물체의 끝 순을 쳐주거나, 예취기를 이용해 작업한다.
- 콩 순지르기를 그릇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므로 올바른 순지르기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 콩 꽃이 핀 후 순지르기를 하면 꼬투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확량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반드시 콩 꽃이 피기 전 시행한다. 또한 식물체의 잎만 자르는 것이 아닌, 끝 순을 반드시 잘라주어야 웃자람을 예방하고 곁가지를 유도할 수 있다.

- 재식 간격이 넓거나 식물체의 키가 작아 쓰러질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순지르기의 효과가 적다.
- 콩 재배농가에서 실증시험을 수행한 결과 콩의 적절한 순지르기를 했을 경우 수량 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절한 순지르기는 식물체의 키가 작아져 쓰러짐이 방지되었고, 결가지가 많이 발생돼 꼬투리 수가 많아졌다.
- 『대원콩』의 경우 15%, 『우람』의 경우 19% 수량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율령대 농업연구관은 “콩의 적절한 순지르기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효과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역효과 나타나므로 올바른 순지르기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콩의 주요 생육 시기별 영농 정보를 지속적으로 농가에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쓰러짐이 없고 드물게 심은 콩의 순지르기】



【콩 꽃이 핀 후의 순지르기】

■ 우리 품종 과일 4총사로 무더위 날리세요

- 여름철 맛볼 수 있는 국산 사과·배·복숭아·포도 품종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여러 가지의 과일 품종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구입 가능한 제철과일 품종을 소개했다.
 - 대표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사과 『썸머킹』, 배 『한아름』, 복숭아 『미스홍』, 포도 『흑보석』 품종이 있다.
 - 사과 『썸머킹』은 7월 중순에 나오는 품종이다. 과즙이 풍부하고 당산비(당도 11~14°Brix, 산도 0.4~0.7%)가 좋아 새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우수한 여름 사과다.
 - 올해 약 135톤이 유통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여름 사과로 대표되던 덜 익은 『쓰가루(아오리)』를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배 『한아름』은 8월 중순부터 나오는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여름철 갈증 해소에 최고다.
 - 『한아름』은 3~4인 가정에서 소비하기 적당한 크기(480g)에 껍질이 얇은 갈색 배로 깎지 않고도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 달콤하고 시원한 아삭함 때문에 한번 맛본 소비자는 반드시 다시 찾는다. 2006년 대한민국 우수품종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며 여름 배로 인정받았다.
 - 『한아름』 품종은 갈색 배이지만 농가의 재배방법에 따라 약간의 녹색을 띠 수도 있다. 『한아름』 품종 이름만 확인해도 맛 좋은 여름 배를 선택할 수 있다.
 - 복숭아 『미스홍』은 8월 상순부터 나오는 품종이다. 평균 과일 무게는 280g, 당도는 13°Brix 이상으로 과육이 부드럽고 향기와 맛이 좋으면서 착색도 잘돼 외관이 매우 수려하다.

- 특히, 잦은 비가 오는 수확시기에도 당도가 떨어지지 않고 고품질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 복숭아는 표면에 흠집이 없고 털이 고르게 나있으며, 꼭지 부분에 틈이 없는 것을 고른다. 백도는 전체적으로 매끈하고 붉게 착색되면서 모양은 좌우대칭이고, 상큼하고 달달한 향기가 진해야 맛있다.
- 포도 『흑보석』은 재배 지역에 따라 무가온 시설에서 7월 하순부터 수확, 노지에서는 9월 중순(수원 기준)에 수확되는 알이 굵은 포도 중 비교적 익는 시기가 빠르다. 2016년 대한민국 우수품종 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 『흑보석』은 포도 알이 까만 보석과 같이 착색이 잘 됐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평균 포도 알 무게가 10.5g, 당도는 18.3°Bri로 단맛과 신맛이 잘 어우러져 있다. 기존 알 굵은 포도의 단조로운 단맛과는 차별화 된다.
- 포도는 껍질 표면이 질으면서 하얀 가루가 묻어 있으며, 알이 굵고 송이가 적당한 것이 좋다. 포도송이가 너무 크고 포도 알이 지나치게 많이 붙어 있으면, 송이 속은 덜 익었을 수 있다. 표면의 하얀 가루는 천연 과실 왁스로 안심하고 구매하면 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사과 썸머킹】



【썸셋드림】



【햇살】



【프리썸】

콩과작물 병해충, 예찰과 빠른 방제로 잡는다

-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병해충↑... 철저한 관리와 방제 중요 -

-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상조건으로 콩과작물 병해충 발생량이 늘어 적극적인 방제활동이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올해는 가뭄으로 밭작물의 생육이 좋지 않으며 병해충의 발생량이 예년에 비해 증가해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 콩과작물 나방류 해충으로는 담배거세미나방, 파밤나방, 콩명나방 등이 있으며, 전년대비 발생이 1.4~2.6배로 높아지고 있다.
- 담배거세미나방과 파밤나방은 피해를 심하게 받으면 잘 자라지 못하고 개화에도 영향을 미쳐 수량이 크게 감소된다.
- 콩명나방은 특히 팔을 좋아하며 꽃눈과 꽃을 가해하고 유충이 종실에 직접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발생 초기 방제를 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준다.
- 나방류 해충은 개화기부터 꼬투리 생성기에 많은 피해를 주므로 이 시기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한다.
- 담배거세미나방과 파밤나방은 약제 저항성이 강하고 노숙유충은 내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초기에 소화중독및 접촉독을 가진 약제를 주기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방제한다.
- 팔을 가해하는 콩명나방은 꽃이 피기 전인 8월 상순~중순쯤 약제로 방제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이와 함께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 노린재류의 피해도 예상되므로 에토펜프록스 등의 약제와 페로몬을 이용한 포획트랩을 설치해 방제를 한다.
- 콩의 주요한 병해는 불마름병, 들불병, 점무늬병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병에 따라 20%에서 최대 40% 가량의 수량 손실이 발생하므로 발생초기에 적용 약제를 살포한다.
- 불마름병과 들불병 초기에는 스트렙토마이신황산염이나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뿌려주고, 점무늬병은 티오파네이트메틸 등을 발병초기에 10일 간격으로 3일 이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촌진흥청 백인열 생산기술개발과장은 “콩과작물 재배 시 나방류 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불마름병】



【들불병】



【점무늬병】

■ 녹·홍차 쌀파스타 제조기술 도내 쌀가공업체 기술이전 상품화 추진

- 전남농업기술원, 명성제분(주), (유)성지 F&D 업무협약 체결 -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7월 14일 자체 연구개발한 『녹·홍차 쌀파스타 제조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도내 쌀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명성제분(주)과 (유)성지 F&D와 무상 기술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에서는 기존에 응용하던 녹차와 홍차의 건강기능성을 활용한 식품소재로 녹·홍차 분말 3%와 국내산 쌀가루 77%에 점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찰쌀보리가루 등 전분 20%를 혼합하여 색, 맛과 향의 기호성이 좋은 호화증숙 파스타면을 개발하였다.
- 녹차와 홍차에는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가바, 데아닌 등 유용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혈중콜레스테롤저하, 체지방감소, 혈압상승억제, 체지방 감소, 항암, 피부미백 및 항염증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다.
- 쌀소비 촉진을 위해 녹·홍차 쌀파스타는 맛과 색, 건강기능성뿐만 아니라 밀가루 식품 섭취시 글루텐 알러지로 고생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웰빙식품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명성제분(주) 김철진 대표는 기술이전 받는 녹·홍차 쌀파스타 제조기술은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프리미엄급 다양한 모양의 쌀파스타로 상품화할 계획이며, 향후 녹차쌀팽화스낵 등 다양하게 녹차·홍차를 소재로 쌀 가공기술을 기술지원 받아 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 (유)성지 F&D 김재욱 대표는 녹·홍차 쌀파스타는 건강기능성 웰빙식품인 만큼 면류시장에서 요구하는 점과 자체의 생산라인에 맞춰 재구성하여 상품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차산업연구소 박장현 소장은 “녹·홍차 쌀파스타 제품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건강기능성 웰빙식품 소재인 녹·홍차와 전남 주산작목인 쌀을 접목하여 신상품 개발 후 산업화하며, 이번 기술 이전 협약하는 두 산업체와 성공적인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가공업체와 지속적으로 연구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보리알곡사료 이용 효과 입증

- 소가 잘 먹고 육량·육질 개선... 청보리(총채보리) 대체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사료용 청보리의 새로운 대안 기술인 보리알곡사료의 육량·육질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청보리(총채보리) 담근먹이(사일리지)는 5~6년 전만 해도 큰 인기가 있었으나, 수분함량이 많고 보리 특유의 까락이 섭취량 증가의 한계로 작용하며 수요가 줄고 있다.
- 이에 대한 대체 기술로 등장한 보리알곡사료는 일반 청보리 담근먹이와 달리 까락 없이 생보리 알곡만 따로 수확해 담근 먹이 형태로 발효해 먹이는 것으로, 부스러뜨리지 않고 통째로 급여할 수 있으며 소가 잘 먹는다.
- 농촌진흥청은 한우 거세우를 대상으로 비육후기 3~9개월 동안 곡물사료(건물 대비)의 10%를 보리알곡사료로 대체해 먹였다.
- 그 결과, 기존 배합사료만 급여하는 것에 비해 출하체중은 평균 8kg정도 늘어났고, 육질(근내지방도)은 10.7%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와 사육방식이 비슷한 일본은 일반적으로 직접 배합하는 비육후기 사료에 납작보리(압편보리)를 사용하고 있다.
- 보리는 옥수수 전분질에 비해 미생물단백질 미생물 단백질의 합성량이 많고, 에너지 이용의 이점이 많아 사료효율이 12% 이상 높다.

- 또한, 지질(지방) 함량이 적어 백색의 경지방을 생산해 도체지방의 밀도를 치밀하게 해주어 전반적으로 고기 품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 보리알곡사료를 만들 때에는 청보리 담근먹이(사일리지)를 만들 때보다 좀 더 성숙시켜 수확과 동시에 담근먹이용 생균제를 뿌려 생보리 알곡을 담근먹이 형태로 만든다.
- 마대자루(톤백)에 500kg 단위로 담아 밀봉한 뒤 60일 이후에 먹이는데, 이때 수분은 55~60% 정도로, 분쇄하지 않고 먹여도 된다.
- 국내산 사료용 청보리 품종은 까락을 가진 『영양』을 시작으로, 가축기호성 개선을 위해 까락의 작은가시 부분을 없앤 『우호』, 까락 부분이 퇴화된 『유진』 등 17품종이 육성돼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발효한 보리의 상태】



【보리알곡사료를 소에게 먹이는 모습】

7. 정책 동향

◆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엄격한 방역 조치 하에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토종닭) 유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제한적인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7.7일 서면) 심의를 거쳐 6.19일 이후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 10개 시도 : 서울·인천·대전·광주·세종·강원·충남·충북·전남·경북
- 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 7개 시·도 : 제주·전북·경기·경남·대구·부산·울산
-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
 - 14개 시군 :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
- 또한, 7.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다음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1주일 중 토요일부터 수요일(5일간)까지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목요일부터 금요일(2일간)까지는 세척소독 실시
-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 시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하여야 한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 시장, 가든형 식당에 대한 상기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전통 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7.17.~8.16. 기간 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축평원간 협업을 통해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축평원 모니터링결과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가 의심이 되는 업소와 '15. 6. 28. 본격 시행된 이후 이력표시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더불어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예전에 표시한 이력번호를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농관원·검역본부·지자체·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역 등 위반업소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나주시, GAP 인증 확대 추진, 지역 농산물 신뢰 제고 기대

- 농가별 맞춤형 GAP 컨설팅 추진, 12월까지 수시신청... 비용 전액 지원 -

- 나주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면적의 확대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GAP 선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GAP 인증 컨설팅 체감행정을 추진한다고 7월 10일 밝혔다.
- 이번 컨설팅은 복잡한 GAP 인증신청 과정에 있어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장별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등 신청서류 작성과 인증신청 대행을 비롯해 현장지도 및 인증 후 신청수수료와 안전성 검사비 신청까지 일괄 처리해 주는 현장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 GAP 인증을 원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소재 읍·면·동과 컨설팅 업체(☎070-4911-1241)에 오는 12월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컨설팅 비용은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 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GAP 인증의 농가별 접근성을 높이고, GAP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더불어 인증면적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현재 나주시는 배·미나리·참외·플럼코트 등 1,228농가 1,422ha를 대상으로 GAP 인증을 받아 GAP 선도 지자체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인증면적을 1,700ha로 확대할 목표로 여름철 이·통장 교육과 우산각 간담회,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복숭아명나방 피해예방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실시

- 7. 18.~28. 밤나무 재배단지 3,132ha 대상, 친환경 안전 약제 방역 -

- 광양시는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광양읍·봉강면·옥룡면·옥곡면 등 관내 일원 밤나무 재배단지 3,132ha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집중방제 대상 해충은 복숭아명나방으로 밤송이에서 부화된 유충이 밤송이나 과육을 파먹고 들어가 밤의 결실과 품질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해충이다.
- 시는 올해 복숭아명나방과 밤바구미 등 밤나무 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항공기를 이용한 일시 집중 방제를 실시해 효과적인 해충 구제를 추진하고 있다.
- 또 친환경 품질 인증 받은 안전 약제를 사용해 고품질 밤 생산은 물론 인근에 재배되는 친환경 농산물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다.
- 시는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항공방제에 앞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장 회의와 마을방송과 차량가두방송을 통해 방제일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철저한 사전 조치를 할 예정이다.
- 특히, 항공방제 구역과 그 외각 2km 이내 지역에서는 산나물 채취나 건조를 금지하고, 장독대나 음식물 용기를 밀폐하고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벌을 가두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항공방제 일정은 비, 바람 등 기상과 헬기 여건에 따라 방제 일정이 조정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림과(☎ 797-2423, 797-2884)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광양시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새 보금자리 마련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7월 11일 이용부 보성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귀농·귀촌협의회(회장 박해종)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리모델링 준공식을 가졌다.
-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상담 및 정책지원 안내를 위한 사무실, 귀농·귀촌인의 정책 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 도시의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농촌의 문화와 농업을 체험 할 수 있는 단기체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정보교류와 화합의 공간으로 운영된다.
- 아울러, 귀농 창업스쿨,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청년 그린팜 원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 이용부 군수는 “최근 새로운 일자리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도시의 젊은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6차 산업화와 전문화가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귀농·귀촌 유치를 통해 인구 5만을 회복하는 등 성공적인 귀농·귀촌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한편, 보성군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귀농정착 장려금, 농가주택 빈집수리비, 귀농교육, 박람회 참가 및 센터활성화, 귀농·귀촌인 영농 기술교육 및 농사체험, 맞춤형 컨설팅, 멘토활동 등 농촌생활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 출처 : 보성군

■ 진도군, 농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 농업인 영농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 -

- 진도군이 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원예 사랑방』을 운영했다.
-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화 전문가를 초빙, 부지화 재배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순회 컨설팅을 실시했다.
- 군은 부지화 재배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영농 애로사항을 적기적소에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대응 방법, 병해충 종합방제 대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품종별 우수 특성을 홍보했다.
-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농가 맞춤형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진도군



9. 해외 농업정보

◆ 쿠바, 커피 산업 동향

- 쿠바의 주력 산업은 식품 산업이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럼(rum), 시가(cigar), 커피 등이 있음. 특히 쿠바는 혁명(1953년) 이전까지 고품질 커피 수출국으로 유명했음
- 쿠바는 최고 품질의 커피를 생산하기에 좋은 기후와 토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임
- 한편, 쿠바는 2015년 생산된 커피(아라비카 커피) 중 8,696포대를 수출했는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독일임
- 최근 들어 쿠바 정부는 최대 프리미엄 커피 수출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16만 7,000ha 규모의 토지에 커피를 파종했으며, 2020년까지 연간 2만톤(약 30만 포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Nespresso, Nestle 등 전 세계 커피 업종 관련 기업들은 쿠바의 커피 생산 확대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 Mitsubishi 상사도 쿠바 커피 산업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음
- 혁명 이후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쿠바의 커피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여(2015~2016년 생산량 60kg 중량 10만 포대), 국내 소비량(22만 포대)에도 미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임

- 국내 소비되는 커피에 비해 자체 생산량이 부족해 소비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함. 주로 브라질 및 에콰도르산 커피를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됨
- 쿠바의 연간 커피 수출액은 2014년 기준 450만달러이었으나, 2015년에는 260만달러로 크게 감소함. 주요 수입국은 일본·독일 및 일부 유럽 국가임
- 쿠바산 커피산업은 혁명 이후 점차 규모가 축소돼 왔으나 Crystal Mountain, Extraturquino, Turquino, Altura 등 프리미엄급 쿠바 커피에 대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관심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쿠바산 커피는 시가, 럼주와 연계된 기호식품으로 최근 미국·쿠바 관계 개선, 관광객 급증에 따라 수요가 높아져 쿠바의 주요 수출상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쿠바 정부는 커피 증산을 위해 생산, 가공, 포장, 보관 설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영국 등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쿠바산 커피는 아직 생산량이 많지 않아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입이 원활치 않으나, 향후 생산량 확대 등을 대비해 기술 및 인적교류 등을 강화하고 생산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도 관심 필요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네덜란드, 인삼 시장 동향

- 네덜란드에서 한국 인삼으로 분류되는 인삼은 『Korean ginseng, Chinese/Asian ginseng, Panax ginseng, Panax ginseng C.Y. Meyer』로 불림
- 한국산 인삼은 네덜란드 인삼시장에서 훌륭한 품질로 유명하지만, 한국 상표제품의 네덜란드 인삼시장 진출이 저조한 상황임
- 인삼제품은 네덜란드 시장에서 식품보충제나 건강보조식품군에 포함됨. 네덜란드에서는 자연식품 및 슈퍼푸드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트렌드와 맞물려, 의약외품(Over The Counter drug, OTC)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진 전통약초나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
- 전체 약초 및 전통식품 시장은 연평균 2% 확대되고 있으며, 2016년 규모는 2억 1,800만유로를 기록함. 이 수치는 네덜란드 소비자 의료시장의 20%를 초과하는 수준임
- EU는 2012년 5월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혼란을 줄 수 있는 의학적 효능표시를 금지함. 약초나 전통치료 제품들은 건강 개선효과를 포장지에 표기할 수 없음.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약초나 치료법에 대해 이미 약효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음
- 네덜란드의 여러 매체에 의하면 한국산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가장 우수한 종류의 인삼이자 친환경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짐

- 네덜란드에서 판매되는 인삼 종류는 크게 한국 인삼, 화기삼 (America ginseng), 가시오가피(Siberian ginseng)로 분류됨
- 2014~16년, 네덜란드는 총 17개국으로부터 인삼을 수입했음
- 수입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한국의 인삼의 가치는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었음. 한국 인삼의 톤당 가격은 2015년 14만 2,128.9 달러였고, 2016년 22만 8,685달러였음
- 2014-16년, 네덜란드의 한국산 인삼의 수입량은 50% 감소 하였지만 한국 인삼의 톤당 가치는 상승해 네덜란드의 인삼 수입 금액의 50%를 차지했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홍삼이나 고품질 인삼으로 수요가 이동된 것으로 판단됨
- 네덜란드 내 약초 및 인삼과 같은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는 주로 자연식품 및 건강식품 전문 유통업자들에 의해 가공 판매됐음
- 일부 상점은 네덜란드에서 정제, 캡슐, 로얄제리, 농축물, 차와 같은 형태로 온라인으로 인삼을 판매함
- 인삼은 일반(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건강보조 식품과 같은 규정을 적용 받음
- 우리나라와 EU는 2011년 7월부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체결 5년 이내에 양국 간의 모든 산업제품의 관세가 철폐됨. 또한, EU는 비EU 국가들로부터의 인삼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가 약초류의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네덜란드 소비자들의 관심은 슈퍼푸드 시장의 성장세로 연결될 것으로 예측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인삼시장은 향후 몇 년간 보합세를 보일 것임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7. 17.(시카고 선물거래소)

□ 온도 상승 전망에 함께 상승한 옥수수·대두 선물가격

○ 밀 선물시장 시황(▼0.2%)

- 전일대비 0.2% 하락하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주간 하락률을 보임. 대부분의 밀 선물 계약은 밀의 길고 옥수수의 짧은 스프레드 완화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음

○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1.2%)

- 일기 예보에서 다음 주 미국 중서부 지역의 높은 기온을 예측함에 따라 전일대비 1.2% 상승함. 화요일 세션, 가격이 여전히 올랐던 시기에 투기적인 투자자들은 옥수수를 순매수로 돌렸고, 대두를 순공매도로 돌림

○ 대두 선물시장 시황(▲1.3%)

- 옥수수 선물가격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의 미국 중서부 지역의 높은 온도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 전일대비 1.3% 상승함. 한 주 동안 전 주 대비 1.3% 감소한 선물가격으로 마감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성황리 개최

- 4차 산업혁명과 미래농업 발전방안 모색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스마트 농업실현을 위해 「제9회 전남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를 지난 7월 14일부터 2일간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성황리에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는 (사)전남정보화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기) 회원과, 도시소비자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보화농업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스마트 농업경영 기술을 습득하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첫날 형식과 격식을 갖추지 않고 진행된 공감토크 시간에는 참석한 농업인들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농업 현장 애로사항 및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4차 산업혁명, 인문학과 농업경영의 특강, 정보화 유공자 우수 사례발표, 시군 우수 농·특산물 전시·홍보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개회식에서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나주 ‘효사랑블루베리’ 최애라 대표 등 농업인 10명과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한애란 농촌지도사 등 5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 김성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세상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농업인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인삼에 대한 정책의견 『국민생각함』으로 보내주세요

- 농촌진흥청, 31일까지 인삼 소비 창출 위한 설문조사 실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인삼 소비 창출을 위해 국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https://idea.epeople.go.kr/>)은 인터넷으로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 주제별 다양한 설문조사나 투표 등이 진행되고 있다.
- 이번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설문조사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 『국민생각함』 주요화면 『핫이슈』에서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삼 소비의 걸림돌과 대안은?』 제목을 찾아 들어가면 된다.
- 총 6문항의 설문조사로 진행되며, 인삼·인삼 제품류를 잘 먹지 않는 이유, 인삼 구입 시 고려요인, 인삼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복잡한 인증 과정 없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가입만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 중에서 추첨으로 20명을 선정, 3만원 상당의 사은품(인삼쌀국수·환)을 지급할 예정이다.
- 국민생각함에서 나온 의견은 농촌진흥청에서 구성한 국민디자인단(국민, 전문가, 공직자가 한 팀을 이루어 정책 설계)에서 인삼 소비 촉진 및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여름휴가, 농촌교육농장으로 다녀오세요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촌에서 휴식과 배움으로 온 가족이 색다른 여름휴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 5곳을 소개했다.
- 농촌교육농장은 학교 교육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먹고, 따고, 잡고, 보는 단순한 농촌관광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농업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새로운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남에는 이와 같은 농촌교육농장 6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여수 송시마을체험장(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478, ☎061-644-2047)

폐교를 체험장으로 만든 곳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오감만족을 제대로 실현해 주는 체험장이다. 동물농장과 파충류 전시관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직접 만져 볼 수 있고,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스피지볼방, 바람의 숲방, 그물놀이터 등에서는 마음껏 뛰놀 수 있다. 또한 두부와 전통음식 만들기, 미꾸라지 잡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신안 자은도 청푸름농장(신안군 자은면 구영1길 22-41, ☎010-9132-5459)

자연에서 캠핑을 즐기면서 농장에서 농촌체험과 바다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는 섬팜핑(farm과 camping의 합성어)을 즐길 수 있다.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요리도 하고, 물고기와 조개는 직접 잡아 구워 먹을 수 있다. 숲 가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급자족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 무안 파도목장(무안군 현경면 해운로 185-10, ☎061-453-6193)

낙농체험으로 우유 짜기, 소꼴주기, 초지체험, 송아지 우유먹이기, 치즈체험 등 목장에서 갓 짜낸 온기 넘치는 우유를 통해 동물과 인간관계, 자연환경을 위한 목장의 역할, 음식과 건강 등 살아가는 지혜를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또한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캠핑도 즐길 수 있다.

□ 구례 쌍산재(구례군 마산면 장수길 3-2, ☎010-3635-7115)

쌍산재는 전남 구례에 소재한 고택 한옥으로 조상의 삶의 역사인 한옥에서 옛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쉼터다. 약 1만 6500m²가 넘는 집터에 살림채 여러 동, 별채와 서당채 등 부속 건물, 대숲, 잔디밭까지 자리한 가옥으로 모든 건물이 숙소로 꾸며져 호젓하고 편안한 한옥 체험이 가능하다. 쌍산재에 머물며 지리산 둘레길과 인근에 운조루, 곡전재도 둘러볼 수 있다.

□ 순천 참한솔교육농장(순천시 주암면 운룡1길 150, ☎010-4635-9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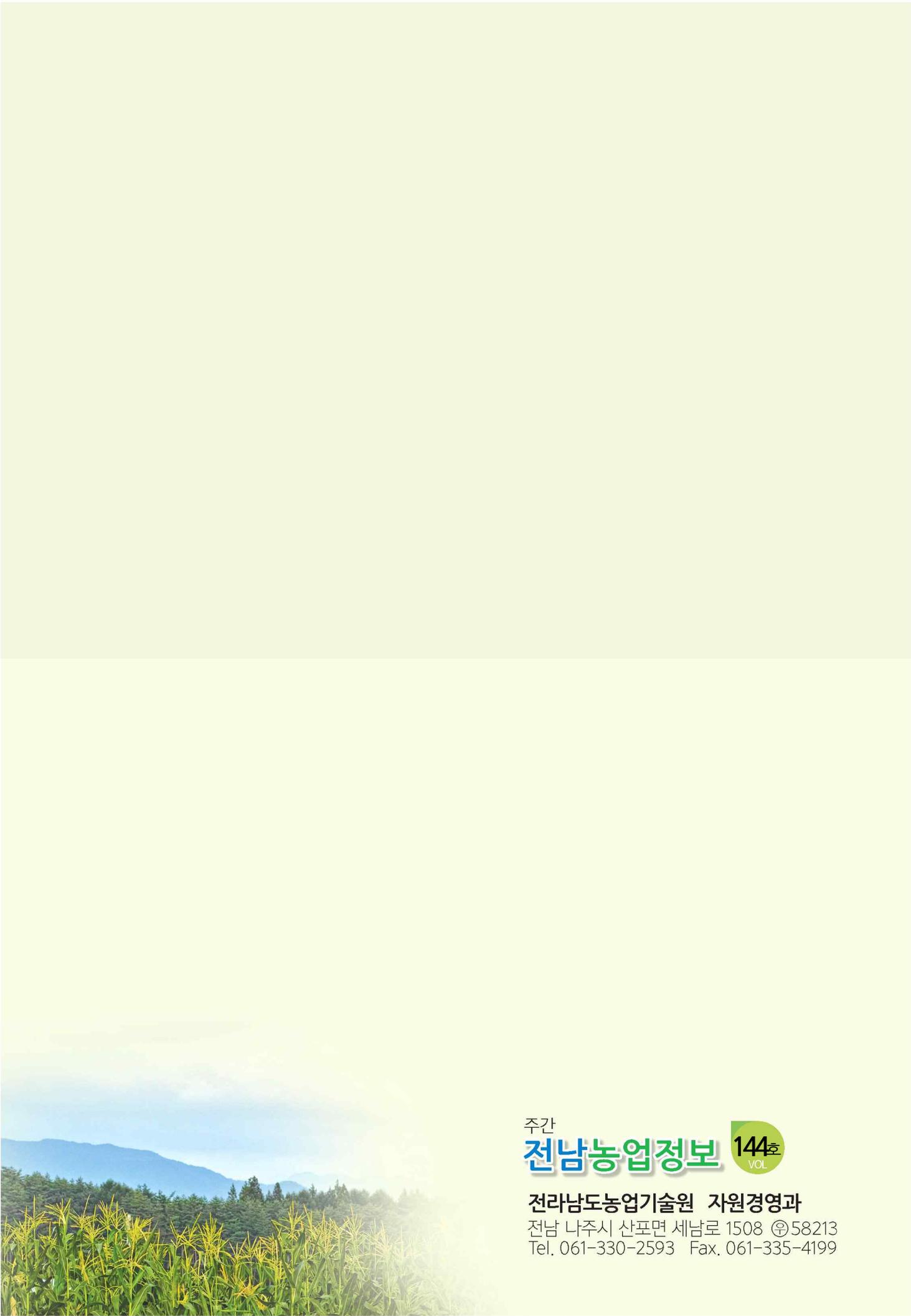
순천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된장·간장·단감고추장·청국장·두부 비지스낵·두유 등을 제조하는 전통식품농장이다. 주요 체험프로그램은 요술쟁이 착한 콩이야기로 전통식품(된장·고추장)의 이해, 콩의 한 살이, 두부만들기 등이 있다. 농장 바로 앞에는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의 시원한 계곡 물이 흐르고 있어 더위를 피해 물놀이도 할 수 있다. 용오름마을이라고도 하는 운룡마을은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농촌체험 전통테마마을로 민박도 가능하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大暑)

- 24절기 중 열두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소서(小暑)와 입추(立秋) 사이에 든다. 대서(大暑)는 음력으로 6월에 있으며, 양력으로는 7월 23일 무렵에 든다. 우리나라에서 이 시기는 대개 중복(中伏) 때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가장 심하다.
- 대서는 중복 무렵일 경우가 많으므로, 삼복더위를 피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계곡이나 산정(山亭)을 찾아가 노는 풍습이 있다. 때때로 이 무렵 장마전선이 늦게까지 한반도에 동서로 걸쳐 있으면 큰 비가 내리기도 한다. 불볕더위, 찜통더위도 이때 겪게 된다. 무더위를 삼복으로 나누어 소서와 대서라는 큰 명칭으로 부른 것은 무더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 『대서의 더위에 염소 뿔도 녹는다, 삼복더위에 소뿔도 꼬부라든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무더운 절기임을 실감나게 해준다.
- 이 무렵이 되면 농촌에서는 논밭의 김매기, 논밭두렁의 잡초베기, 퇴비장만 같은 농작물 관리에 쉴 틈이 없다. 또한 참외·수박, 채소 등이 풍성하고 햇밀과 보리를 먹게 되는 시기로 과일은 이때가 가장 맛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과일의 당도가 떨어지고, 가물면 과일 맛이 난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주간

전남농업정보

144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